



#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26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월 12일 (음력 11월 26일) 금요일

## 전남 '먹튀·무늬만' 귀농인에 엉터리 지원

### 15개 시·군 대상 실태 감사 벌여 56건 적발 42억여원 회수·추징

#### “경쟁적 귀농 유치 부적격자 지원...귀농정책 개선 할 필요 있어”

전남지역 상당수 시·군이 이른바 '무늬만' 귀농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귀농지원 보조금이 줄줄 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2009년 이후 귀농지원



손 꼭 붙잡은 할아버지와 손자의 눈길 동행

사흘째 내린 폭설로 인해 유치원은 휴원을 하고 일부 어린이집은 차량 운영을 하지 않은 가운데 11일 오전 광주 남구 백운동에서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등원을 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적설량은 나주 25.5cm, 영광 24cm, 함평 22.5cm, 무안 20.3cm, 목포 18.5cm, 광주 19.1cm, 장성 17.5cm, 신안 17.1cm, 영암 16.8cm, 화순 15cm, 강진 13.5cm, 곡성 11.8cm, 장흥 11cm 등을 기록하고 있다.

보조금 집행 및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56건을 적발, 42억여 원을 회수 및 추징하고 관계 공무원 23명에 대해 신분 조처를 했다.

정착자금을 지원받고도 다른 지역으로 진출하는 이른바 '먹튀' 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이 많이 적발됐다.

A군은 귀농 정착금을 지원 받은 14명이 다른 지역으로 무단 진출했는데도 보조금 1억6300만 원을 회수하지 않았다.

B군은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은 뒤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도 보조금 2000만 원을 회수하지 않아 적발됐다.

이같은 사례가 12개 시·군에서 95명, 정착금만 15억8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자격 결격인 이른바 '무늬만' 귀농인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한 사례도 적발됐다.

귀농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촌전입 일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귀농교육 10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실제 영농기간이 3개월 이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교육이수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C군은 실제 영농 증빙자료 없이

농지원부만 제출했는데도 교육이수로 인정, 총 56명에게 22억5400만 원의 용자금을 지원받게 하는 등 8개 시·군에서 지원자격 결격 귀농인 119명에 대해 54억 1200원을 부적절하게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 종합상담 매뉴얼에 시장·군수는 귀농 자금을 받은 귀농인에 대해 관리대상과 카드를 작성·비치하고 연 1회 이상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개 군에서 이런 실태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귀농체제를 위한 '농어촌 한옥체험관 건립 운영지침'에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체험시설을 운영하도록 규정했지만, D군은 귀농과는 관련 없는 관광객, 공무원 등 373명에게 672일간 민박형태로 체험관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전남도는 “시군별로 경쟁적으로 귀농을 유치하면서 부적격자에게 정착자금을 지원하고 귀농인들이 토착민들과의 갈등으로 인해 도시로 유턴하는 사례 등이 있다”면서 “문제점 예방을 위해서는 농촌사회 문화에 대한 귀농교육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귀농 지원보다는 실제 영농에 종사할 귀농인을 유치하는 등 귀농정책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은 2013~2016년까지 귀농 7257가구(전국의 15.8%, 2위), 귀여 11567가구(전국의 33.2%, 1위)로 나타났다.

김영환 기자

## 강진 종오리농장서 또 AI항원 검출

### 지난 4일 고병원성 발생 농가 10km 방역대 내 위치...당국 긴장

강진 종오리농장에서 또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강진군 성전면 한 종오리 농장에서 폐사체와 산란을 저하 등으로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검사를 진행한 결과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고병원성 여부는 2~3일 후에 나올 예정이다.

이 농가는 지난 4일 AI가 발생한 강진 작전면 종오리 농가로부터 반경 10km 이내 방역대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키우는 종오리 5900마리를 살처분하고 3km 이내 1개 농

가에서 사육하고 있는 닭 6만마리의 처리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이 농가는 계열사 소속은 아니지만,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농가로부터 방역대내인 6km 정도 떨어진 것으로 전해져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한편 올겨울 고병원성 AI는 전국적으로 모두 12건으로 9건이 전남이다. 영암 4건, 나주 2건, 고흥 2건, 강진 1건 등이며 현재 강진과 장흥 2개 농가에 대해 고병원성 여부를 정밀검사중이다.

강진=최재영 기자



### 숲을 바라

하태경 비문장당 최고위원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우리은행 달력에 수록된 초등학생이 그린 그림을 두고 비판한 것에 대해 '빨갱이 그림'이라고 어린이 동심을 이용하는 한국당이 제정신이 아닌 한자장당이라고 지적했다.

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인공기가 그려진 우리은행 달력과 자유한국당의 사전선거 포스터가 담긴 팬벨을 들어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우리은행 달력을 가리키며 '남북평화통일을 바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한쪽에 태극기가 있으면 다른쪽에 북한 국기 그려야 하지 않냐'면서 '북한 인공기를 그리는 초등학생은 천재다. 심을 주지 못할 망정 빨갱이 그림이라고 어린이 동심을 이용하는 것이 제정신이나 고비판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서은홍·자료사진=뉴시스



하태경



홍준표



하태경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 광주형

# 일자리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

